투데이 칼럼

제3의 파워는 '언력' 이다

전 대의 창조시대에는 언력 (言力)이 세계를 지배한다. 인류 문명의 파워가 군사력 에서 경제력으로, 경제력에서 언력 으로 이동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말 잘 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세상이 되 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돈과 권력을 가진 경쟁자를 언력으 로 제치고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다.

그러므로 현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가정에서도 가족간의 대화,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시민과 행정인들과의 대화, 조직원과 지도자들과 대화 등 우리 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효과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일찍이 켄 블랜차드학자는 "말하지 않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 니다"라고 하였듯이 말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구사되는 말 의 핵심은 설득이며 설득은 곧 돈 이고 성공을 부르는 무기이다.

여기서 설득을 잘하는 능력은 무 엇인지 생각 해 보자.

설득 잘하는 사람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계산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능력으로 설득의 50%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설득의 성공률은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이미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 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 비된 자만큼 무서운 자가 없기 때 무이다.

둘째, 말을 재미있게 하는 능력으로 적절한 인용문과 함께 논리와 감성을 조화시키는 말이 필요하다. 무미건조하게 메시지만 전달해서는 설득에 한계가 있고, 소리에 불과한 말이 되고 만다.

셋째, 말을 잘 듣는 능력으로 말을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주 장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반박하고 공략해서 설득 시킬 수 있다. "대화의 제 1규칙은 경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과감한 베팅과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인데 설득에서의 감각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눈치와 과감한 결단력과 승부수가 설득의 성공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

다섯째,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설득은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에 필요한 능력이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는 내 가족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시키기란 더욱 어렵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상 대가 미덥지 않으면 불안하기 마련

앞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설득의 1, 2, 3의 중요성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설득에만 몸을 매면 설득은 멀리 도망간다.

둘째, 상대가 지금 나를 만나는 이 유, 그가 얻고자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오늘 당장 성과가 없어도 좋 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다만, 내 게 소중한 것은 타인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소중한 진심바이러스를 심을 수만 있다면 설득은 보이지 않는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다.

설득의 능력을 바탕으로 스피치를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 득인데 설득의 요령은 비즈니스맨 들에게는 필수이다.

그 요령은 항상 역지사지로 상대를 분석하여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NEED(육구)화법을 이용하고 신뢰감이 들도록 구체적이고 감동적, 논리적인 또는 정확한 이론과 통계를 통해 실례를 들어라. 권위를 세워주며, 호의를 베풀고 가능한 청찬하는 스피치를 해야 한다. 또한 희소가치를 강조하며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스피치를 할 때상대의 설득도 효과적으로 할 수있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일컬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말은 긍정과 부정 양날의 힘을 가진 말의 힘을 말하므로 창 조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이 시대 가 요구하는 호감 받는 성공적인 스피치인이 되어 보자. 이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화합시키고 나라 경제를 살 리는 것이다.

독자제언

화물차 적재함 승차행위 '위험천만'

며칠 전 아침 출근길 사고 예방을 위한 러시아워 근무 중 화물차가 적 재함에 젊은 사람들 열댓 명을 태우 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최근 농촌에서는 영농철 양파나 수 박 수확 작업 등을 위해 화물차 적재 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일상화, 관례화 다니 이다

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영농철 농기계 사고는 1,393건이 발생했으며, 203명이 사망 하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 하며 특히 5~6월에 집중되어 발생하 였으며 90%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실제로 몇 년 전 익산에서 생강을 캐러 가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인 부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사 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공간 으로 시답을 태우면 안되며, 이러한 탑승행위 시 안전띠 등 별도의 안전 장치가 없어 조그만 충격에도 튕겨 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 하 일이다.

적재함 탑승 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일반 차량보다 9배가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보험료 수령액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화물차 적재함에의 승객탑승 운행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2호에 의거 벌점 없이 5만원에서 2 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잠깐이니까, 가까운 거리이니까"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탈피하여 안전 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

전근수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중 무역협상 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31일 상하이 무역협상장인 시자오컨퍼런스센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대회하고 있다.

사 설

인구 감소 절벽 고민해야

전북도는 인구 감소 절벽을 고민해야 한다. 통계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인구 동향을 보고했는데 지난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누계혼인 건 수가 지난해같은 기간과 비교해 3.1%가 줄었고, 출생이는 4천명으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5백명이 줄었다.이는 관련 통계보고가 있었던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화되는 모양새이니 전북의 미래를 걱정 안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야 되겠다.

여기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예전과 다른 저출산 대책을 세워 야겠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 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만 꺼내놓고 여태 진전이 없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손을 놓고 있 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동안 잊을만하면 저출산 실태 를 보고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 한 보고였지 싶다. 관계 전문가들 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 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후 성과가 어땠는지 여태 감감 무소식이다. 그것은 늑장이라도 보통 늑장이 아니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 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 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다. 사실이 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오래 전부 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 는 그게 아니다. 출산 문제가 이 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 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 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비 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 를 심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전북도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날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하겠다. 전북도는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현상이 굳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이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65세 이상노인 인구의 비율은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드물게 듣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전주 구도심 활성화 사업 속도 내야

전주시에 물어볼 것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도청사 공터에 전라 감영 건물을 짓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그밖의 구역들은 변화가 미미하니 하는 말이다. 전주시가 밝힌 플랜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크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싱겁다. 청사진 발표와 달리 별다른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저번에 보도된 뉴스대로라면 서학동 예술촌도 달라지고 노송동 일대도 달라져야 맞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시늉만 보여주고 있는 듯

전주시가 나름 애를 쓰고 있다 지만 시민의 기대치에 도달하려 면 더 노력해야 한다. 전주시가 지난날 천명했던 것과 비교해보 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고 주문하는 것이다. 구도심을 문 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하 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 잔치에 그 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시 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이다. 무슨 까닭으로 미적거리는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여러 차례 공표했으므로 박력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 방침을 호기있게 밝혔으면 일의 추진도 그래야 한다. 뜸 들이는 식으로 길게 끌지말라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힘차게 속도를 냈으면 한다. 앞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식의 발언이 반복돼선 안 되겠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도 천명했으므로 실천으로 신뢰를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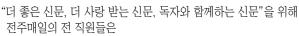
것인지 많이 아쉽다.

복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작업에 함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어떤지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도심지인 서노송동 지역은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많다. 도로에서는 폐가들이 안보여도 높은 빌딩에서는 흉물스런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래 기다린 시민들을 위해서 달라진 구도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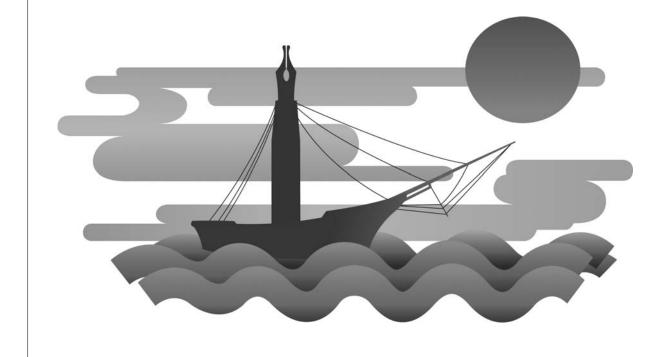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